

# 언론 보도 사항

2016 10월 4일

---

## < 목 차 >

1. 내 고위험 산모 병원 이송 체계 강화 - KBS춘천
  2. 강릉서 창고 보수하려다 무너져 70대 깔려 - 연합뉴스, 뉴스1, 포커스뉴스
  3. 강릉주택서 한밤중 화재...인명피해 없어 - 포커스뉴스, 뉴시스
  4. 호우주의보 해제...속초, 양양군 고립사고 잇따라 - 연합뉴스, 뉴스1, G1, 강원일보
  5. 시정점포 30% 배선불량 잠재적 화재위험 노출 - 강원일보
- 

## 강원도 종합상황실

---



강원도 내 고위험 산모에 병원 이송체계가 강화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19종합 상황실에서 고위험 산모의 신고가 접수되면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제작한 임신부 관리 웹을 통해 산모의 나이와 임신기간 등 출산전 정보를 실시간 119 구급대에 전달해 효율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3일 낮 12시 55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서 정모(72) 씨가 보수하던 창고가 무너지면서 담장과 슬래브 지붕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정 씨가 의식과 호흡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연휴에 비가 내리자 장독대를 보관하는 높이 약 1m, 넓이 약 1평(3.3㎡) 남짓한 창고를 보수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70대 창고 보수하던 중 담장 무너져 깔려



3일 낮 12시55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수릿길에서 정모씨(72)가 물이 새는 창고 담장을 보수하던 중 무너진 벽에 깔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어 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강릉 주택서 장독대 무너져...70대 중태

3일 낮 12시55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한 주택에서 장독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J씨(72)가 무너진 장독대에 깔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강릉주택서 한밤중 화재...인명피해 없어



3일 0시14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대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서 출동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및 경찰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가정집에서 화재



3일 0시14분께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의 한 가정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난 가운데 강릉소방서 소방관들이 집 안 화재를 진화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속초·양양서 호우에 차량·관광객 12명 고립 잇따라



2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 속초와 양양지역의 하천 수위가 올라가 차량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3일 오후 1시 36분께 속초시 도문동 속초자동차학원 인근 쌍천을 건너려던 싼타페 차량(운전자 김모·59)이 불어난 물에 움푹달싹하지 못했다.

119구조대는 로프 등을 이용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송이축제가 열린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는 이날 정오께 하천 가운데 설치된 주막에 있던 관광객 12명이 통행로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행사장에 마련된 수륙차량을 이용해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의 양은 속초 66.6mm, 양양 42mm를 기록했다.

소방 관계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므로 조그만 개울이라도 선불리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호우주의보 해제...속초, 양양군 고립사고 잇따라



강원도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고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일 오후 1시36분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속초자동차학원 인근에서 싼타페 차량 운전자 김모씨(59·속초)가 쌍천을 건너다 고립됐다.

이에 소방은 구급대원 10명을 투입, 로프와 구조 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어제내린 많은 비로 고립된 것으로 보이며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므로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9분쯤 양양군 양양읍 '송이축제' 남대천 강변 일대서 정자와 주막을 설치한 곳에서 호우로 인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소방은 구급대원 8명, 구조차, 구급차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양양소방관계자는 "평상시에는 돌다리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물이 불어 고립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속초 산간은 66.6mm의 비가 내렸으며 양양군 남대천 상류는 지난 2일 밤부터 오전10시까지 79mm의 비가 내려 금일 오전 9시에 호우특보가 해제됐다.

## 남대천 15명 고립됐다 구조



어제 오늘 내린 비로 양양 송이축제가 열리고 있는 남대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10여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남대천 가운데 섬에 마련된 행사 주점에 있던 자원봉사자와 관광객 등 1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119 구조대와 주민들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양양군은 오색천에 내렸던 많은 비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江原日報

2016년 10월 04일 화요일 005면 사회



**불어난 물에 갇힌 차량** 3일 오후 1시36분께 속초시 도문동 속초자동차학원 인근 쌍천을 건너려던 싼타페 차량이 전날부터 내린 많은 비로 물이 불어난 탓에 고립돼 119구조대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축제 봉사자 불어난 하천 고립 영동고속도로서 3중 추돌사고

연휴 마지막날 사건·사고 잇따라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도내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55분께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주택에서 높이 1.5m, 면적 3.3㎡의 장독대가 무너져 내려 정모(71)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씨가 장독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양양송이축제장 인근 남대천변에서 자원봉사자 13명이 빗물에 갑자기 하천이 불어 3시간가량 고립됐다.

119구조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체

험용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실어 날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1시께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면 새말IC 인근에서 SM7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따르던 쏘렌토 승용차가 앞서 사고가 난 두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모(32)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날 0시14분께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집주인 장모(여·63)씨는 집 밖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옥 60㎡가 불에 탔다.

박기용·임재혁·정윤희기자

## 시장 점포 30% 배선 불량 잠재적 화재 위험 노출

도내 전통시장 점포의 30%가 전기 배선 상태가 불량해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새누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전기시설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의 배선상태 불량률은 31%에 달했다. 정윤희기자

### ◇김상철인제소방서



장은 4일  
오전 10시  
경기 양평  
용문문화  
체육센터

에서 열리는 수상구조  
훈련에 참여.